

코아와 축성도재의 두께에 따른 전부 도재관의 색상 비교

김근배, 이근우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

심미적 증가를 가져온 전부 도재관은 변연부 재현성과 파절에 대한 저항성 감소 및 균열가능성 등의 한계가 노출되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스템이 개발되었다. Vita-Hiceram의 경우는 금속 구조물을 사용하지 않는 고강도의 알루미늄나 코어구조물을 사용해서 도재치관을 제작하는 방법이고 In-ceram은 1~5 μ m의 알루미늄나 입자속에 유리를 침투시켜 전부 도재관의 코어를 제작하는 방법이며 IPS-Empress의 경우 유리를 주조하여 결정화시키는 방법이다.

이들 세종류의 새로운 도재 시스템들은 도재 용착주조관의 내부금속관 대신에 core를 제작하고 이 위에 도재를 축성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.

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 core의 전체 색상에 미치는 차이를 각각의 코아의 두께에 따라 살펴보고 또한 같은 색상을 나타내는 이들 core에서 색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광 측색 방법적 분석을 통해 비교해보고자 하였다.